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고발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 시 2019. 6. 20. 11:00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난민인권네트워크
Korea Refugee Rights Network
난민, 우리곁에 있습니다

보/도/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발신	: 난민인권네트워크
제목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취재 요청
발신일	: 2019년 6월 12일
문의	: 난민인권센터 김연주010-8706-3382/ 사단법인두루 이상현 010-9503-1271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6월20일(목)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진행일정
 1.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발언
 2. 공항에서 벌어진 폭행 및 위법한 계구사용 등 인권침해 사건
 3.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과 변호사접견권 침해
 4. 공항 난민신청자의 열악한 처우와 위법한 여권 압수의 관행
 5. 미성년자, 여성 난민신청자의 건강권 침해
 6. 성명서 낭독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6월 20일은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라는 위상을 알리며 출발한 한국의 난민법 시행과 함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피해 도착한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항에서 한국정부의 보호를 구하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정식의 난민심사 기회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되고 있습니다(난민심사로 회부하는 비율 2017년 10.6%, 2018년 46.7%). 이들 가운데 소수는 어렵게 외부와 연락이 닿아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정식으로 접견을 신청하였음에도,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한 채 약속된 날짜 직전에 강제로 송환되는 일도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3. 강제송환의 압력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보호를 구하는 난민신청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는 매

우 심각합니다. 수갑, 족쇄를 채우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언도 있었고, 밀폐된 보호실에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유일한 구제수단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에 갇혀 지내야 하는데 처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법무부와 항공사가 책임을 방기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출국장 한 켠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식사를 굶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어린 아동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고, 몸이 아픈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항공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여권을 압수하는 위법한 관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4.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항의 깨끗함과 안락함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성명서

발언문: 출입국항에서의 인권침해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개항 이후 18년간 한국의 관문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자랑스럽게도 매년 전세계에서 시설과 서비스가 제일 훌륭한 공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쾌적함과 편리함의 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 주변에는 공항에 접견신청서를 넣고 난민을 만나러 갔으나 허탕을 친 변호사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귀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떠난 난민신청자들이 어렵게 다시 연락이 닿은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전한 진술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송환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을 경험했고, 수갑과 족쇄 등 계구에 의해 제압당하였으며, 인간의 존엄을 뿌리 채 흔드는 모욕과 멸시가 난무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유사한 진술이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폭력적인 송환절차가 관행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구역인 줄만 알았던 공항 에어사이드는 정부의 법과 질서도 당하지 않는 치외법권, 무법지대 였습니다.

이번 진정서는 그나마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수 있었던 피해와 구체적인 진술만 추려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폭행을 당하고, 가스분사총이나 곤봉 등에 의해 맞기도 하고, 수갑을 찬 채 강제로 끌려가 비행기에 짐처럼 실렸

습니다. 이미 제압되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이런 상황을 조롱하는 듯 웃으며 구경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자들은 같은 세상,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좌절과 공포에 빠진 사람을 비웃으면서 때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인천공항공사에 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 계구를 최소한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실무자들이 계구 사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요청시에는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송환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공항에서 일하는 송환 담당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관행이 자리잡도록 철저한 지휘와 감독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어 온 공무원과 임직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몇몇 사람의 일탈이라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침묵 속에서 존엄성을 잃고 무너진 피해자들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고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에 만족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진정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한층 더 도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착륙과 입국사이의 좁은 경계선 안에, 좌절과 공포 속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발언문 : 변호사 접견권, 강제송환 관련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고발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9. 6. 19.

공익법센터 어필 / 이일 변호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난민들에게 한국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얼굴은 무엇입니까? OECD 10 위권 국가의 경제력과, BTS를 비롯한 K-pop으로 상징되는 한류의 강력한 영향력입니까? 난민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한국의 얼굴은 공항입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한국의 공항에서 만나는 얼굴은 잔인하고, 반인권적인 얼굴입니다.

저는 곤경에 빠져 피난처를 찾은 난민들이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맞닥뜨리는 얼굴 중 공항에서 또다시 곤경에 빠졌을 때 의 얼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비자나 여권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입국목적도 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실제 한국 땅을 밟아 자신의 임시적인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지 두려운 난민들이 공항에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들은 또다시 곤경에 빠집니다. 돌아갈 수 없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곤경, 구금되고 단절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이 곤경은 처절하지만 한편 지극히 외롭고 두려운 것입니다.

첫째, 공항에서 난민들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권을 공항에 도착한 구금된 난민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항에서 변호인 접견권이란 요원합니다. 어떤 공항에서는 변호사와 난민이 상담을 하여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도착하면 이미 출입국공무원이 설명하길 본인이 스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 제주공항에서는 여태까지 입국이 불허된 난민이 변호사를 만날 약속을 하고도 석연치 않게 돌아간 소식 뿐입니다. 변호사를 성공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이 부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대신 목소리를 내줄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들과 난민들이 만나면 일이 커지고, 입국 불허된 난민들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당국의 생각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도, 변호사에 관한 정보도, 실제 절차적인 조력도 기울이지 않게 합니다. 굳게 닫힌 한국의 국경에서 변호사를 실제로 만나는 것, 그것은 한국에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투쟁의 결과입니다.

둘째, 심사절차가 종료되기 전 난민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결코 강제로 송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고, 곤경에 빠진 난민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송환대기실에 있거나, 환승구역에 노숙하며 머물거나, 출입국 사무소의 보

호실에 구금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으며, 난민으로서 심사기회를 보장받아 한국정부의 인도적 얼굴을 맞닥뜨리려는 난민들은, 입국이 허가되기 까지, 재판이 잡혀 판사의 얼굴을 보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술한 송환의 위험을 겪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돌아가라 하고, 음식의 지급은 중단되며, 출입국 공무원은 이를 감독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실제로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때로 모욕적이거나 비웃기도 하며, 항공사 직원들과 가드들을 통해 억지로 비행기에 태우기도 합니다. 난민은 욕설도 듣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강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난민들의 연락은 닿지 않습니다. 과연 박해의 피해자로 소멸한 것인지, 또 다른 피난처를 찾아 제3국의 국경을 넘은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맞닥뜨릴 얼굴은, 더이상 변호사를 만날 수 없게 차단하고, 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위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송환하는 얼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를 묻고, 취약한 난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당연한 일은 더 이상 희망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발언문: 처우 실태 관련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고발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9. 6. 20.

사단법인 두루 / 이상현변호사

지난 겨울 공항터미널에서 지내고 있는 한 난민가족으로부터 제가 받은 편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하고 현재 공항 터미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병을 호소하고 있는 부인, 그리고 네 명의 자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식사도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음식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씻어야 합니다. 그마저도 씻기 위해서는 두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곳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 장소이며, 전혀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병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기 몸을 긁어대고 있고, 피부병이 있는지 간지럼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가리키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때에도 처음 겪어보는 겨울의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도 인간입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이곳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호소는 현재 공항난민들의 처우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청, 공항공사, 항공사, 그 누구도 터미널에 있는 공항난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숙식을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터미널의 의자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자비로 터미널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하고, 돈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이 경우 ‘운수업자가 숙식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청, 공항공사도 책임을 항공사에게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공항난민들은 도저히 인간이 생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터미널이나 송환대기실은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잠시 기다리거나, 송환열차를 잠시 기다리는 동안 머무르는 공간일 뿐입니다. 비위생적이고, 건조함이나 더위·추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생활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오래 머물렀다가는 피부병에 걸리기 십상인 곳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도, 외부와의 통신도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공항난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형자들에게도 통신의 자유나 운동을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엔도 ‘만델라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수감된 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입니다. 공항난민들도 인간이므로, 그들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항난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환대기실과 터미널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약국은 있지만, 처방전이 없어서 약을 살 수 없습니다.

공항난민들에게도 아주 제한적으로 의료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이나 항공사, 공항공사의 ‘시혜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고, 변호사가 대동한 경우에 한하여 병원을 갈 수 있는데, 그마저도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그마저도 항공사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직업적 신념을 가진 의사가 왕진을 가려고 해도, 행정당국의 ‘복지부동’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간청을 하면, 지리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시혜적’으로 왕진이 허용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혜’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을 들어가 봐야 그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항난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성명서]

인권의 사각지대, 공항을 고발하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진정

지난 2018년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들은 대다수 출신국으로 강제로 출국되었고, 소수만이 변호사 및 난민단체와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그 소수 중에서도 2-3사례 외에는 결국 강제로 출국되고 말았다. 이들이 출국 후 보낸 연락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공항의 깨끗함과 안락함 이면에 추악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증언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제로 출국된 난민 중 일부는 폭행을 당하였고, 수갑, 족쇄 등의 계구가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7월에 출국한 한 난민은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울며 때리지 말라고 비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환승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 안에서도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다. 2018년 8월에 출국한 다른 난민은 인천공항에서 오후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0시간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고, 한밤 중에 따로 불러가 폭행을 당하였다. 2018년 11월에 출국한 난민도 인천공항에서 폭행을 당하였으며 환승

공항까지 수갑을 한 상태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울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공항의 화려함 너머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비인간적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항에 머물고 있는 난민은 열악한 처우에 노출되어 있다. 공항의 난민들은 숙식이나 건강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극한의 생존 상황에 놓여 있다. 공항에서 지내던 만 2세의 아동은 발바닥이 가뭍에 마른 논처럼 갈라졌고, 고열에 시달렸다. 건강이 쇠약해진 여성들은 출국장에 방치되어 굶거나, 빵과 초콜릿으로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보호를 구한 한 난민은 수 차례의 강제송환의 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회 공공질서를 위반했다'며 구금시설에 가두는 일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난민의 여권을 법무부와 항공사가 빼앗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위법한 관행이 난무하고 있다. 공항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는 단순히 난민을 방치하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소극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폭력이다.

공항에 머물고 있는 난민은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의 조력과 도움에서 차

단된다. 외부와의 통신 및 접근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극소수만이 외부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렵게 연락이 닿아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접견을 신청하자, 변호사가 만나기로 한 날짜 전에 송환되어 만나지 못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심지어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변호인 접견이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로 출국 후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몇몇 난민은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 보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변호인 접견공간이 없어 출입국공무원 옆에서 면회를 해야 했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2018년 5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난민도 변호인접견권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항에서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공항은 한국의 헌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말인가.

분단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한국에서 공항은 유일한 출입통로이고, 모든 외국인이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살아 남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문을 어렵게 두드렸는데, 한국은 이들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돌려보내기 급급하다. 자유와 안전, 그리고 평화를 찾아 지구 다른 편 한국까지 목숨을 걸고 도착한 이들에게 우리는 절망과 무력감, 모멸감, 치욕, 충격, 공포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공항은 한국의 국경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영토 안에 있으므로 한국의 법과 질서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해 한국의 헌법과 법에 의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공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한 두 번의 일탈로 목인하기에는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마치 일상처럼 폭력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공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인류애를 품고, 동료 시민을 환영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공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리고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착륙과 입국 사이의 기약 없는 시간 속에, 인권이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폭이 좁은 국경선 안에, 오늘도 그들은 갇혀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